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레 문수경 김두산 김경상/김해숙 김기수 김병율/이영숙 김준구/이소은 김진희 김창길 김현욱 박정숙 박종삼 박혜진 방석태/차욱자 백성원/안지영 석애자 유현호/이영미 유호근/손명화 윤영준/박진숙 이옥남 이종문/김명중 이찬호 이희환/오희정 임형문/박금옥 장복순 장성자 정영심 정옥순 조규영/윤혜란 채만기/장은주 채희춘/황영옥 최기훈 최성현/윤정자 최성환 최정규/김미영 최정희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레 문수경 김명중/이종문 김재인/이강우 김준구/이소은 김해숙 김현욱 박은숙 박종삼 방석태/차욱자 정영심 정옥순 조욱자 최기훈/정계숙 최정희

☞ 감사헌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레 김규찬/최효자 김병율/이영숙 김정자 김준구/이소은 김중익 김현구/서재희 박권제 박부용/최귀남 박종삼/이명원 박희영 엄영분 유소정 윤정호/유옥자 이미자 이옥남 이월숙 이찬호 이춘휘 정기성/심순옥 조규영 채영업 채희춘 최정규/김미영 하세련 홍유정 황영옥 무 명 정화순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김명숙 김민성 김수현 김정훈 김준현 김지훈 김형숙 김춘화 김혜란 박민서 박순자 박정숙 박희영 방복순 배병찬 백경자 송백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이경자 이기자 이승애 이옥남 정옥순 정혜지 주성탁 최귀남 최선미 황영옥 무 명 양일석 이노를 정승현

☞ 월정헌금

김묘순 전갑희

주간 성경연구

52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역대하 36장 1절 ~ 10절		
월요일	역대하 36장 11절 ~ 23절	목요일	마가복음 1장 35절 ~ 45절
화요일	마가복음 1장 1절 ~ 15절	금요일	마가복음 2장 1절 ~ 12절
수요일	마가복음 1장 16절 ~ 34절	토요일	마가복음 1장 13절 ~ 22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훈 강영성 김병율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제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욱 장명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목사	김제호		
	전도사	이필레		
	준전임전도사	김두산		
	교육전도사	이송이 문수경		
찬양대	지휘자	할렐루야 : 김한나 시온·에덴 : 최원지	혼산나 : 김안나 엔젤 : 이난수	
	반주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오영주 강민주 김미희 공희라 정희연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리스트	김안나 정예슬 채종범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국 : 김정숙	이집트 : 김진숙	
		수리남 : 안석렬 이성욱	A X 국 : 김해월	
		미국 : 김다니엘	A X 국 : 이분옥	
	대국 : 최옥희	모잠비크 :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국 : 박영성 정세미	대국 : 박경환 이순연		
멕시코 : 김홍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합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2018. 12. 23. 주일 예배 설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누가복음 2장 25-38절

설교자 이진우 목사

혹시 기다림에 익숙하십니까? 세상이 점점 빨라지면서 기다리는 일을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고, 이제 남은 언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뿐입니다. 기다림의 모범을 보인 인물들을 통해 우리도 기다림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1. 예수님을 기다린 시므온

-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이들 가운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했으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6-27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 했습니다. 또한 그의 위에는 성령이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시므온이 살았던 시대는 영적 암흑기라고 불리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시므온처럼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의롭고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경건을 지키며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가 시므온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영광스럽게도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 28-32절을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라고 시므온은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께서 시므온의 품에 안겼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이모든 역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가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예수님을 기다린 안나

- 또 예수님을 기다린 이들 중에는 안나라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고, 84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는 것이 안나의 일상이었습니다. **본문 36-37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팔십사 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 당시 과부는 가장 가난한 계층이었습니다. 안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즐거움과 소망으로 삼고서 고난의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속량”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38절입니다. “마침 이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3.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

- 기다림은 참으로 지루한 일입니다. 기약 없이 기다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역시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시므온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므온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충만해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자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 거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을 보여 드리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만 붙잡혀 있다면 역시 주님을 기다리지 못할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성령에 붙잡혀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절제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4 - 52

2018. 12. 30.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사도행전 3장 6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